

# 소외·낙후 지속화 전북 경제 체질 강화 '온 힘'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지난 1년은 천년 전북 실현의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의 시작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 성공 실현을 위한 '춘화추실(春花秋實) 도정' 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년 도정 운영에 대해 "민선 6기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한 틀잡 기였다면 7기의 첫해인 지난 1년은 정책진화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좀 더 기다리고 구체화해 실천하는 시작의 해였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1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지엠 군산공장 부지의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과 올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본보는 송하진 지사를 찾아 민선7기 전북도정 1년에 대해 들어본다.

## ▲민선7기 1년을 맞았다. 민선6기부터 보자면 5년의 시간이다. 지난 시간을 간략히 자평한다?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모든 걸 쏟았다. 소외와 낙후가 지속되면서 전북의 경제체질이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같은 악재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전북경제 체질을 새롭게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전회위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체질 강화와 생태계 조성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 미래형 생태계 조성사업 예타 면제 등 굵직한 성과를 여러 거두었지만 민생에서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전북대도약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은 제대로 놓이고 있다.

##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됨으로써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가치를 단숨에 올린 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공항 건설 사업은 별도 민적인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듭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제조업 쇠퇴로 인해 위기를 겪던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일도 큰 성과였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국제공항사업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빠른 추진이 가능해졌다. 문을 닫았던 GM군산공장과 MS 컨소시엄이 인수에 나섰고, 대창·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도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추진해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만금 주행시험장 준공 등으로 전기차, 상용차 육성을 위한 기반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

## ▲전북경제의 체질 강화를 대단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고 싶었으며 어떤 일에 주력하고 있는지?

전북은 농업 시대, 역사의 주역이었다. 전북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전북사람들의 자존의식은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면서 절망의 산업시대를 겪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근대산업의 토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매우 취약한 경제체질을 갖게 됐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한 두 개의 이탈로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면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미래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전북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조선 등 전북의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농생명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산업, 수 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전북의 강점인 관광자원을 ICT와 결합해 전라 북도를 최고의 여행체험관광지로 만드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삼락농정은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농

가소득 3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농가소득을 높이고 그 구조를 다원화하는 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에도 주력했다.

## ▲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생태계가 존속하기 위해선 선순환의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신(新)산업이 받아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려면 산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산업과 관련기업의 터전인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3가지 핵심 요소는 R&D 기반과 인력, 그리고 SOC라고 생각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신산업 별도 R&D기반을 다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집중했다.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제조기술기반의 기술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과 관광, 생활 수요에 대응할 SOC도 확충해나가고 있다. 특히, 전북 대도약의 동력인 새만금 사업은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교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을 추진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서두름으로써 개발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 ▲새로운 인수를 찾은 GM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선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전북 상생형 일자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폐쇄된 GM군산공장을 활용한 전기 완성차 생산모델이고, 나머지 하나는 새만금에 전기 완성차와 부품기업을 집적화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모델이다.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는 MS 컨소시엄과 대창·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각각 2250억원과 17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들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만 해도 총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1개월 사이에 상생형 일자리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도는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목표로 바빠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요구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협약 마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 주체인 군산시를 주축으로 도(道)와 노·사·민·정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인 '상생협약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역 노동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 ▲새만금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인데 눈에 띄는 성과였다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사업,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호재로 떠오르면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SOC도 대폭 확충했다. 2020년 완공되는 동서도로를 비롯해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신항만, 새만금~대야간 철도 등도 조성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이 가시화됐다. 투자여건도 개선되고 장기임대용지도 조성돼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생산 단지로 새만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이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도 예타조사 면제받아 GM 군산공장 인수로 상생형 일자리 선정 대응 나서 작년 농가소득 증가율 1위로 삼락농정 효과 '톡톡'



업인을 미래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청년농부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의 식품, 김제의 종자 및 농기계, 정읍과 순창의 미생물, 새만금의 첨단농업을 혁신도시의 농생명 R&D 기관과 연계, 융합하는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조성도 빠르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향토자원을 특화한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과 말산업특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첨단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으로 떠올랐다. 현재 진척 상황은?

작년 새만금에 3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제조 및 연구기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대통령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미 관련 기업들의 착공과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2023년까지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및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과 재생에너지 융합 시험·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도 추진한다.

## ▲기업 유치 실적, 일자리 창출 성과는?

민선6기 이후 799개 기업이 전북에 유치되고 투자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예정액을 포함해 5조5000억원을 상회하며 고용계획도 3만여 명에 달한다.

도드람과 일진제강, 사조화인코리아, 경인양행, 농협케이칼, 나노스, 한솔케이칼 등 10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이행, 약속한 알짜기업들이 유치돼 전북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성과는 주력산업의 세계 실물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그리고 지방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이뤄낸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기반을 새만금에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법의 개정으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제공하게 된 덕분이다.

## ▲이밖에,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예산·정책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전북의 위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북 뭇 찾기를 통해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도민들도 많이 호응해주셨다. 덕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 등 정부인사에 38명의 전북인이 임명됐고, 국가와 공공기관 9개를 유치했다. 올해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인 7조 328억원을 확보했고, 전북의 현안사업도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건립을 확정할 일은 전북 뭇 찾기가 거둔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한다.

## ▲공약 이행 상황은?

도민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 11개 분야 101개 공약사업 중 공약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12개이고, 8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약사업에 관한 철저한 관리로 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전국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전북의 대도약과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

## ▲도민들에게 한 말씀

늘 전북도정을 격려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를 겪었던 전북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굵직한 성과도 거뒀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 성과는 더욱 키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나가기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겠다.

/집진성 기자